



건설 지표 (2025.2)

▶ Analyst 송유림
3772-7152
yurim.song@hanwha.com

▶ RA 이다연
3772-7690
dayeon.lee@hanwha.com

목 차

0. 2025년 가이던스: 반등의 핵심.....	02
1. 국내 건설지표.....	03
2. 해외 건설지표.....	10
3. 주가 및 밸류에이션.....	14
4. [첨부] 미국 주택지표.....	16

건설 (Positive)

2월: 이익 정상화 먼저

국내: 주택 공급(Q) 증가 제한적

2024년 12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23.5% 감소한 28.3조 원을 기록했으며, 2024년 연간으로는 1.5% 증가로 마무리됐다. 토목 및 비주거용 건축 수주 감소를 주거용 건축 수주가 모두 메웠는데 특히, 9월 이후 공공 부문의 주택 수주가 가파르게 늘어났다(연간으로 2.6배 증가). 한편,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주택 인허가 실적은 12월에 각각 YoY +28.5%(주거 +72.1%, 비주거 +7.9%), +59.1%를 기록했다.

2024년 전국 아파트 분양은 25만 세대로 작년 21만 세대 대비 18%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 분양 계획은 현재 기준 18만 세대 수준이다. 건설사 공급 계획을 취합 중에 있어 변동의 여지가 크지만, 대형 건설사 분양 계획을 감안하면 올해 공급 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미분양은 전월대비 5027세대 증가한 70173세대를 기록하며, 다섯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한편, 12월 준공 후 미분양은 21480세대로 전월대비 2836세대 늘어남에 따라 17개월째 증가를 기록 중이다.

해외: 2025년 수주 목표 긍정적

2024년 12월 MENA지역 프로젝트 계약액은 17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연간 +24%)했고,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액은 2024년 371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외수주 목표로 작년 대비 35% 증가한 500억 달러를 제시했다. 73억 달러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고려해 목표치를 높여 잡았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작년 목표액은 400억 달러였다. 주요 5개 건설사(현대건설, 삼성E&A,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의 2025년 해외 수주목표 또한 전년 성과대비 11.7% 높게 제시됐다.

건설업 투자전략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Positive(긍정적)'로 유지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부정적/긍정적 변수의 혼재로 주택시장 회복은 단기간 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려워 보이나, 건설사 실적은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개선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다. 다만,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실적은 업체별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중장기 실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투자포인트를 보유한 업체를 선호한다. 이에 업종 내 최선호주 현대건설, 차선호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의견을 유지한다.

0. 2025년 가이던스: 반등의 핵심 [2/10 발간자료 요약]

2024년
바닥 확인의 의미

2024년은 “바닥 확인”의 측면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해였다. 신규 수주가 증가 전
환한 가운데 주택 수주 및 분양 물량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바닥을 디뎠다.
무엇보다 이익의 바닥을 확인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주택시장 위축 및 물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2021년 실적 정점 이후 3년
간 이익 감소를 겪어왔다. 그러나 거셌던 역풍이 점차 잦아드는 지금, 증익을 바라보고
선 자리가 정확한 바닥임을 이번 4분기 실적을 통해 확인했다.

2025년 가이던스,
핵심은 이익 턴어라운드

2025년 신규수주 목표는 주요 6개 사 합산 기준 전년과 유사한 82.0조 원, 매출액은 전
년대비 8.3% 낮은 72.1조 원으로 제시됐다. 주택 공급 계획도 연결기준 5개 사 합산
7.9만 세대로 전년대비 4천 세대 가량 줄었다.

그러나 2025년 경영 가이던스의 핵심은 수주도, 매출도, 분양도 아닌 이익이었다. 비우
호적 사업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업황에 기댄 탑라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매
출과는 무관하게 마진 정상화에 따른 이익 개선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중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 각각 62%, 38%
높은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제시함에 따라 실적발표 당일 주가가 9%, 14%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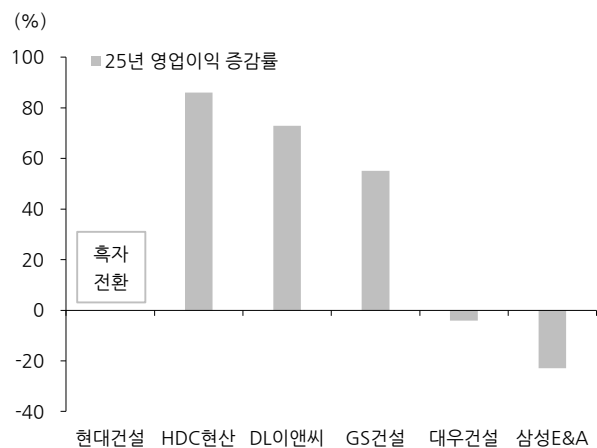
지금부터
시점과 강도가 중요

이익의 방향성이 확인된 만큼 이제부터는 이익 개선의 강도와 그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점이 보다 중요해졌다. 실적 발표 이후 조정된 시장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2025년 영업
이익 증감률을 살펴보면, 현대건설 흑자전환 > HDC현대산업개발 86.1% > DL이앤씨
72.9% > GS건설 55.1% 순으로 높다.

2025년 증익에만
그쳐선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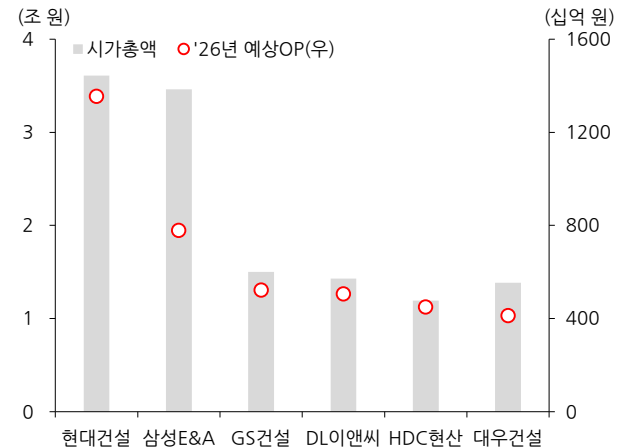
물론, 부진한 실적을 베이스로 한 2025년의 기계적인 이익 개선만을 업종의 투자포인트
로 삼을 순 없다. 올해에도 원가 상승 및 미분양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고, 주택시장 회
복이 더딘 영향으로 2026~27년에도 업황에 기댄 막연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 이상으로 중장기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는 ‘무기’가 있느냐를 포인트 삼아, 종목 선택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림1] 주요 건설사 2025년 영업이익 증감률



주: 시장 컨센서스 기준 /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요 건설사 '26년 예상 영업이익과 시가총액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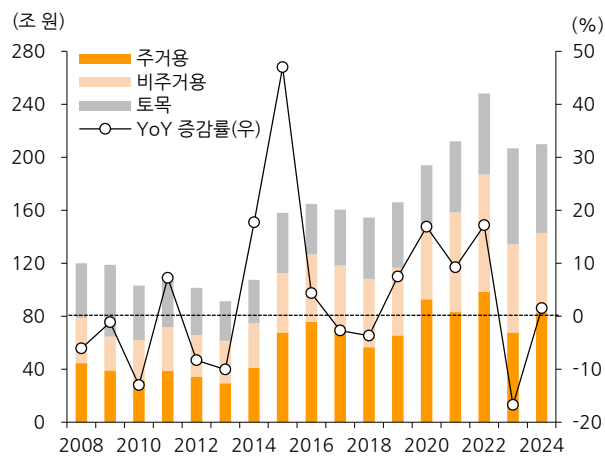
주: 2026년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 /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 국내 건설지표

(1) 선행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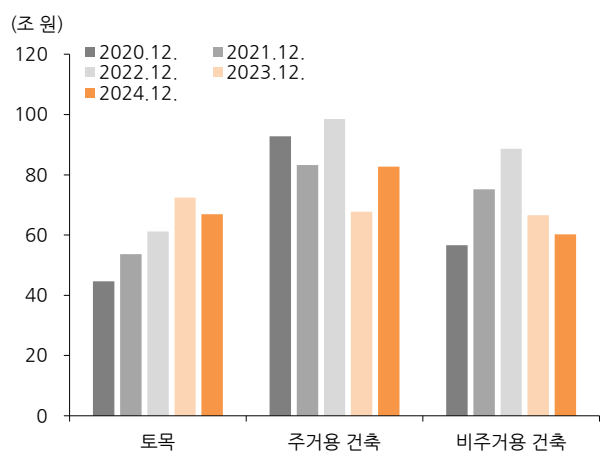
2024년 12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23.5% 감소한 28.3조 원을 기록했으며, 2024년 연간으로는 1.5% 증가로 마무리됐다. 토목 및 비주거용 건축 수주 감소를 주거용 건축 수주가 모두 메웠다. 특히, 9월 이후 공공 부문의 주거용 건축 수주가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며 연간으로 2.6배 증가(5.4→ 14.1조 원)했는데 이는 LH의 발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한편,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주택 인허가 실적은 12월에 각각 YoY +28.5%(주거 +72.1%, 비주거 +7.9%), +59.1%를 기록했다.

[그림3] 국내 건설 수주액: 2024년 YoY +1.5%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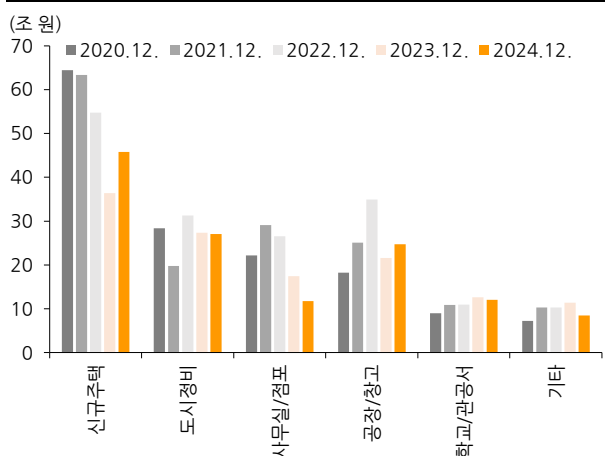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국내 건설수주 부문별 현황(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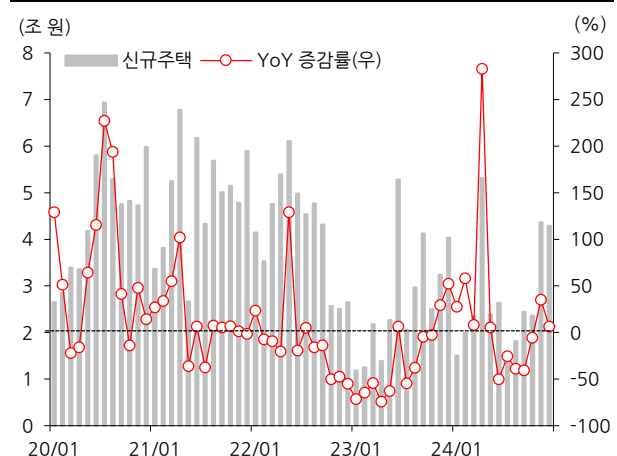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건축부문 세부공종별 수주 현황(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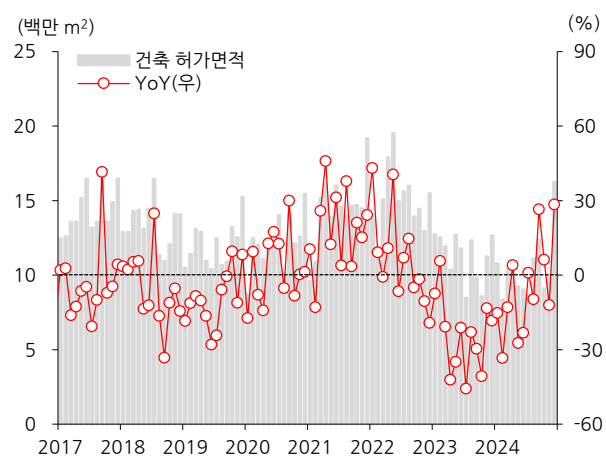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민간 신규주택 수주 월별 추이: '24년 12월 YoY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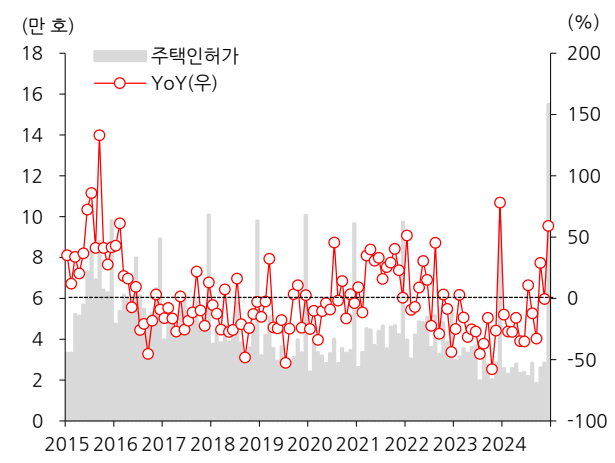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건축 허가면적: 2024 년 YoY +6.8% 기록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주택 인허가: 2024 년 YoY -0.1%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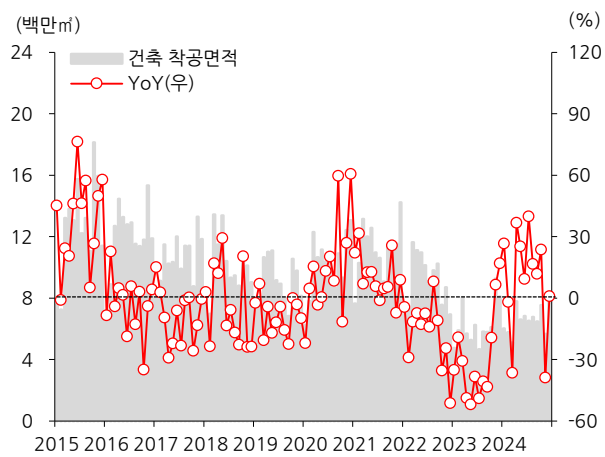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동행지표

12월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했다. 주거용 착공면적은 YoY -16.1%를, 비주거용 착공면적은 +15.2%를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4.8% 증가를 기록했는데, 이 중 주거용 착공면적이 YoY +6.8%로 작년 기저를 바탕으로 한 회복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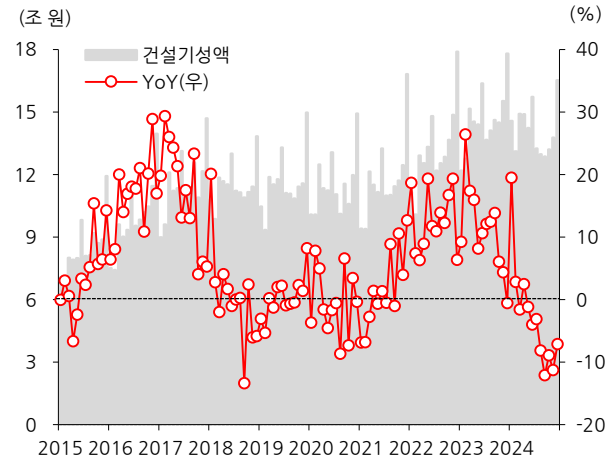
건설 기성액은 3월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어 그 폭이 점차 확대되는 중이다. 1분기에는 YoY +6.2%를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1.0% 감소로 전환됐고, 3~4분기에는 각각 -7.9%, -9.0%를 기록했다. 건축 착공면적이 2022~23년 각각 18%, 32%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건설 기성액은 올해에도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9] 건축 착공면적: 2024년 YoY +4.8%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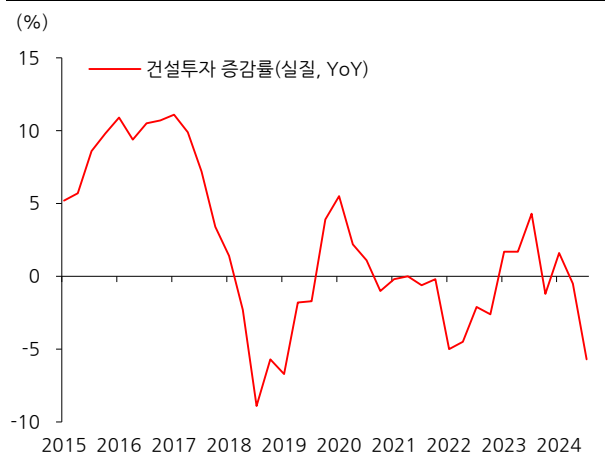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건설 기성액: 2024년 YoY -3.2%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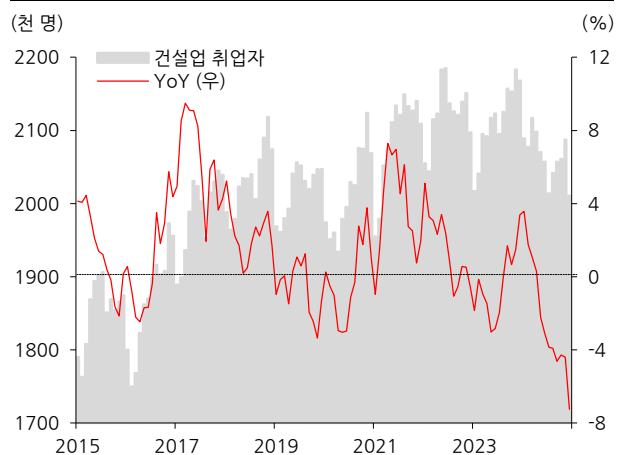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건설 투자 증감률: '24년 3분기 YoY -5.7% 기록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건설업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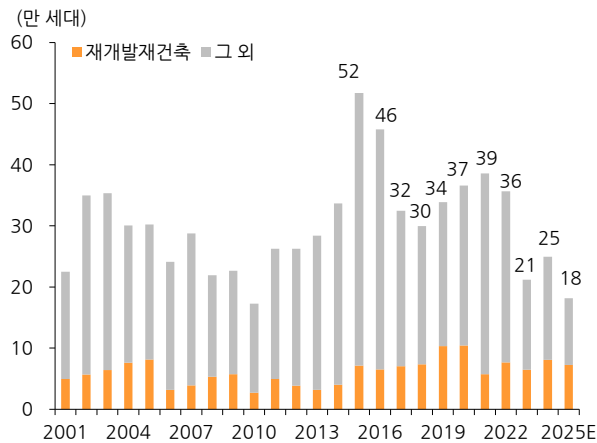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주택 분양 지표

2024년 전국 아파트 분양은 25만 세대로 작년 21만 세대 대비 18%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 분양 계획은 현재 기준 18만 세대 수준이다. 건설사 공급 계획을 취합 중에 있어 변동의 여지가 크지만, 대형 건설사 분양 계획을 감안하면 올해 공급 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적인데, 2024년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인 32%대로 확대됐으며, 올해 계획 상 그 비중이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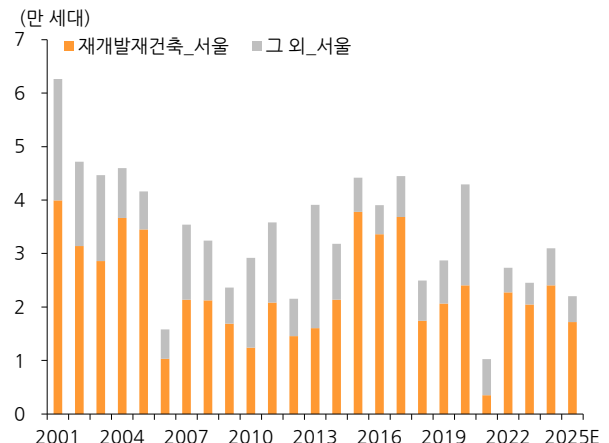
한편, 12월 미분양은 전월대비 5027세대 증가한 70173세대를 기록했다. 다섯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수도권은 9월 이후 미분양 증가가 이어져온 반면, 지방은 5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9월부터 시작된 주택 매매시장 둔화의 여파로 해석된다. 한편, 12월 준공 후 미분양은 21480세대로 전월대비 2836세대 늘어남에 따라 17개월째 증가를 기록 중이다.

[그림13] 아파트 분양공급 추이 및 계획: '25년 공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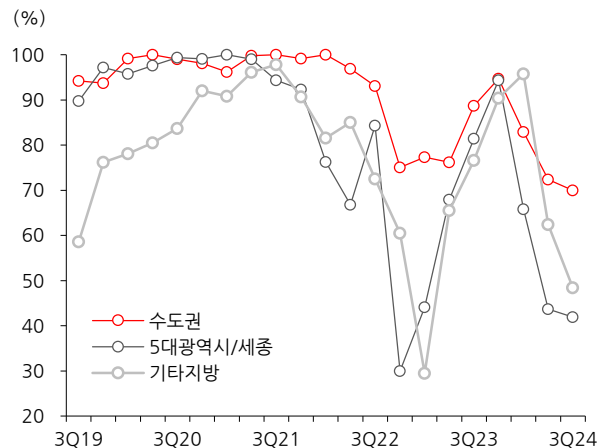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 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서울 아파트 분양공급 추이 및 계획



자료: 부동산 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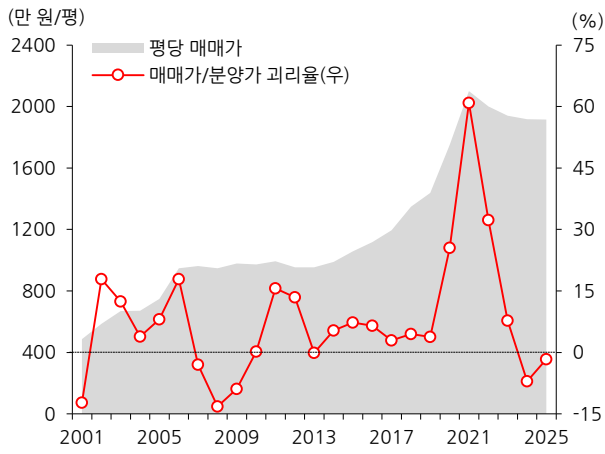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전국 청약경쟁률 추이(1~2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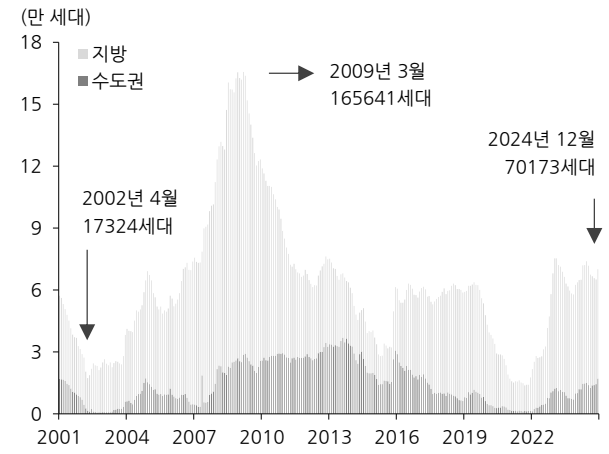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전국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가 괴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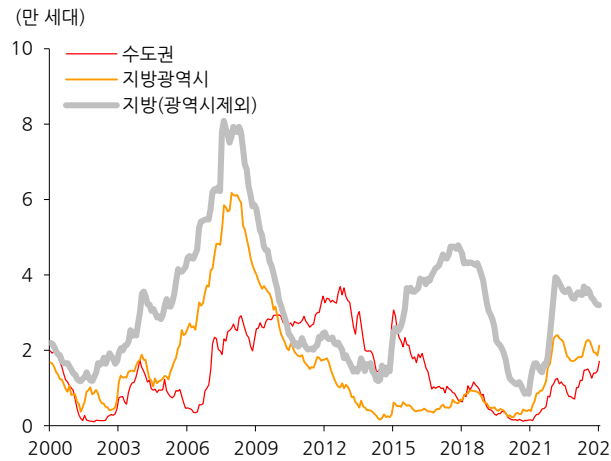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전국 아파트 미분양 세대수: 전월비 5027 세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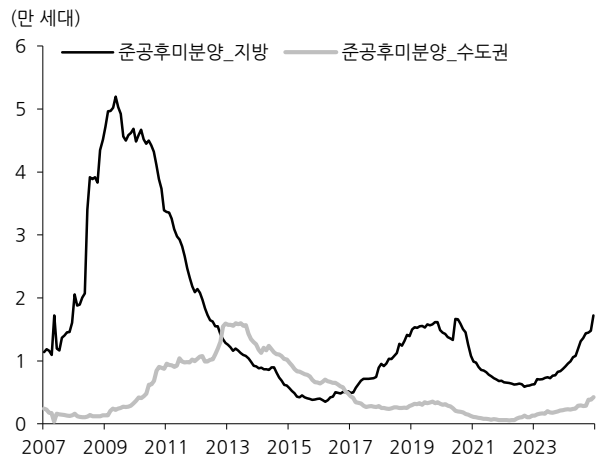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지역별 아파트 미분양 추이: 지방 5개월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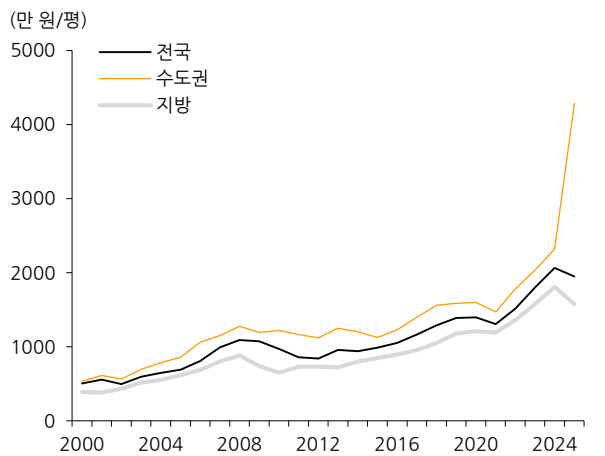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전국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전월비 2836 세대 증가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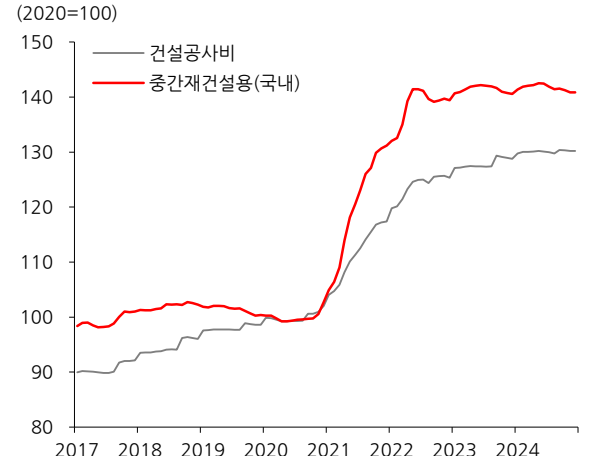
[그림21] 전국 아파트 분양가 추이



주: 수도권 분양가 급상승은 25년 2월 레미안 원패를라 분양 영향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건설공사비 및 건설용 자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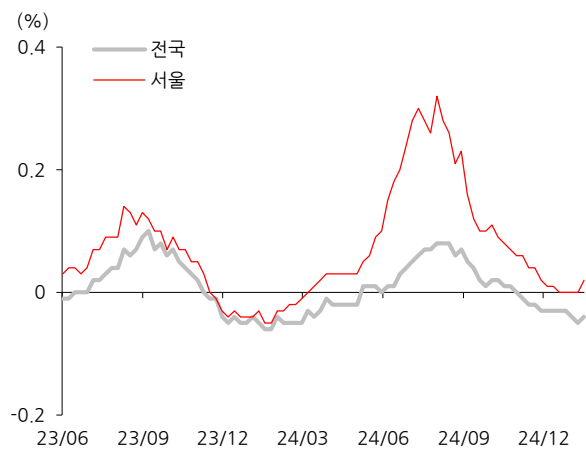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주택 거래 지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변동률은 가계대출 관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9월 이후 상승 폭이 둔화돼 11월 중순에는 하락 전환했다. 다만, 1/27 기준 매매가 및 전세가 가격은 전주대비 낙폭을 줄였으며, 보합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4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전세가격도 전국은 보합, 서울은 상승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작년 9월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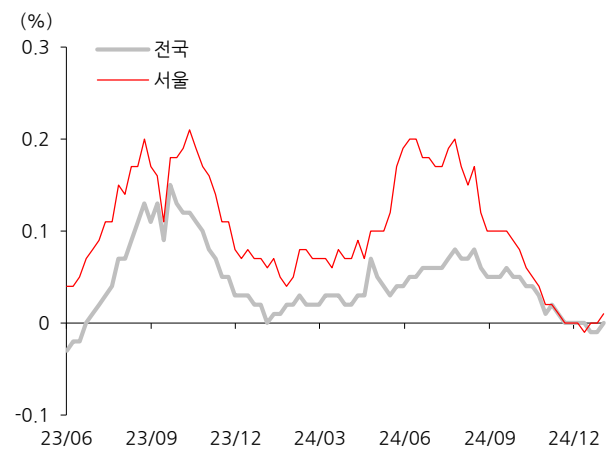
한편, 1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및 그 외 주택이 각각 YoY +27.6%, +4.2%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365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4% 늘었으나, 월별로는 7월 9518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5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갔다.

[그림23]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주간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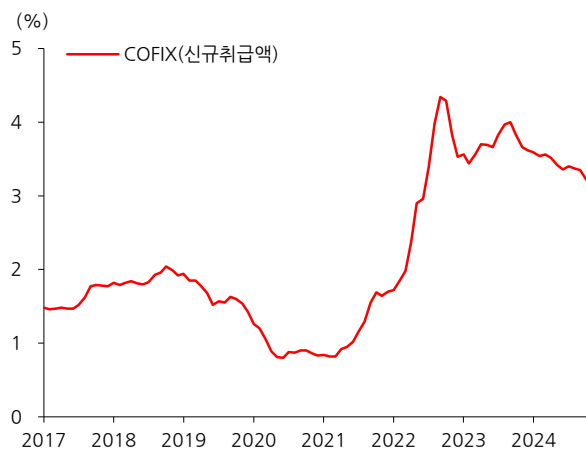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주간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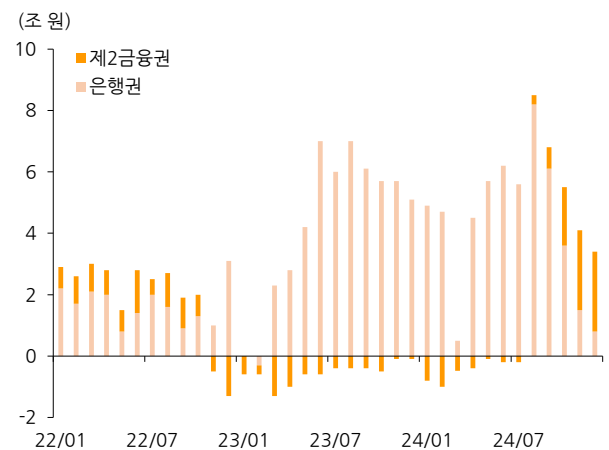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COFIX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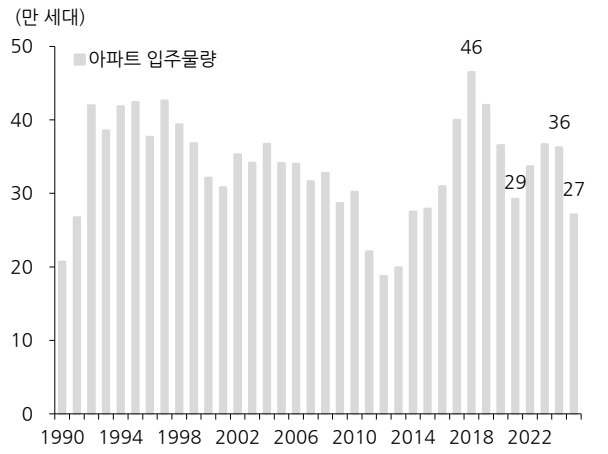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주택담보대출 MoM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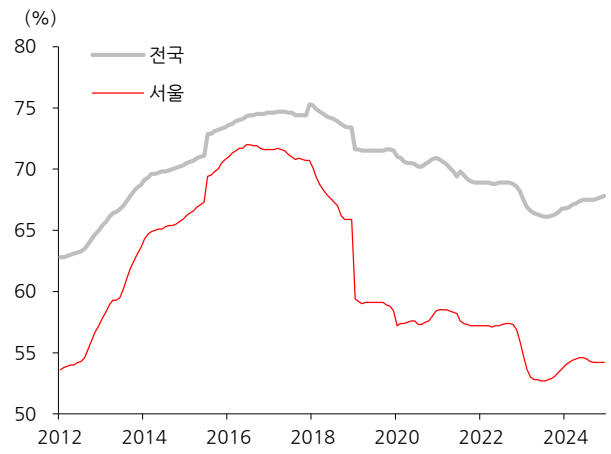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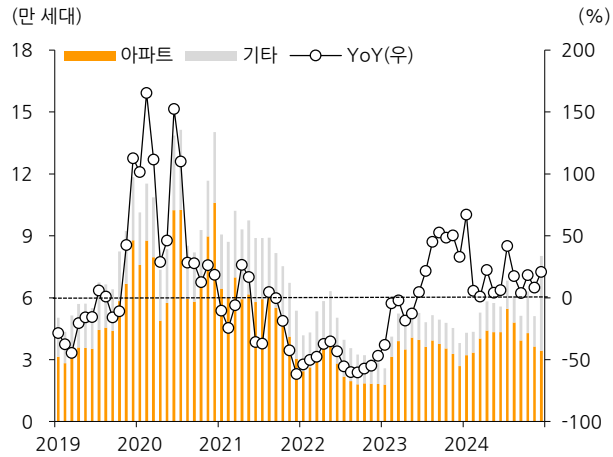
[그림27]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 2025년 27만 세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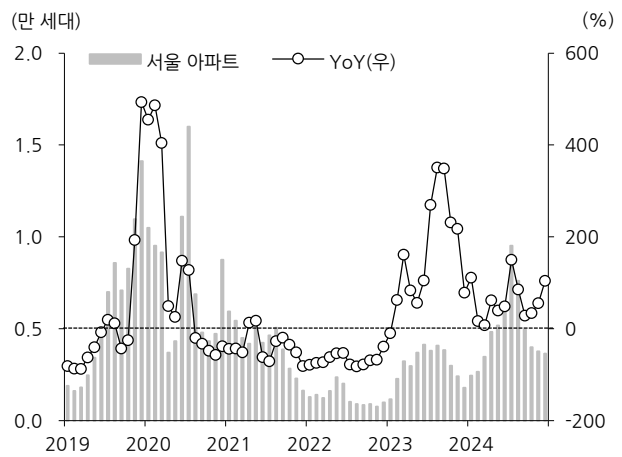
[그림28]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그림29] 주택 매매거래량: 12월 YoY +20.7% 기록



[그림30] 주택 매매거래량 - 서울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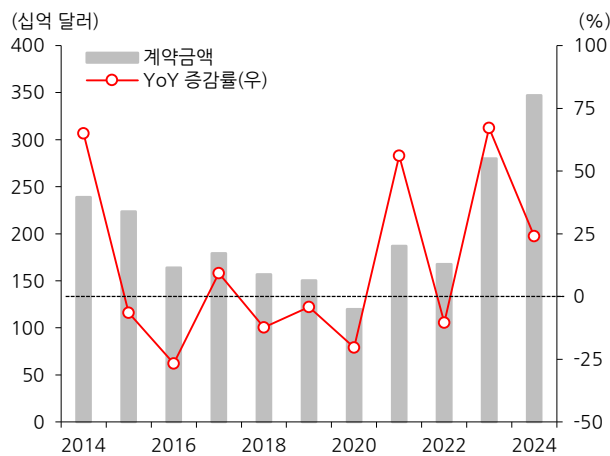


2. 해외 건설지표

(1) 중동 발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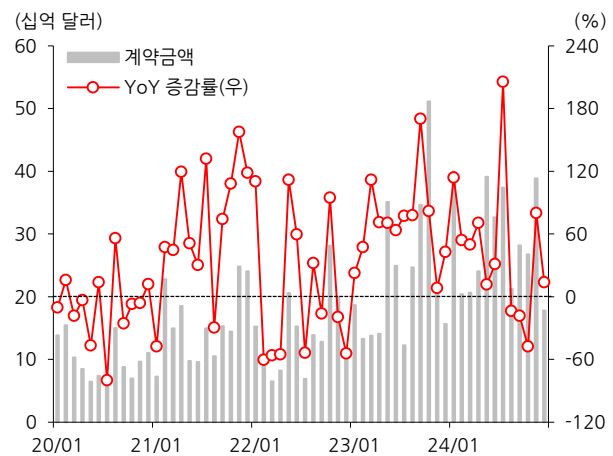
2024년 12월 MENA지역 프로젝트 계약액은 17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2024년 연간으로는 YoY +24%를 기록했다. 12월 계약금액 중 공종별로는 Transport와 Power 프로젝트가 각각 36.1%, 30.3%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국가별로는 UAE 42%, 사우디아라비아 37%, 쿠웨이트 9% 순이었다. 이 중 국내 건설사 수주 프로젝트는 없었다.

[그림31] MENA 지역 발주금액: 2024년 YoY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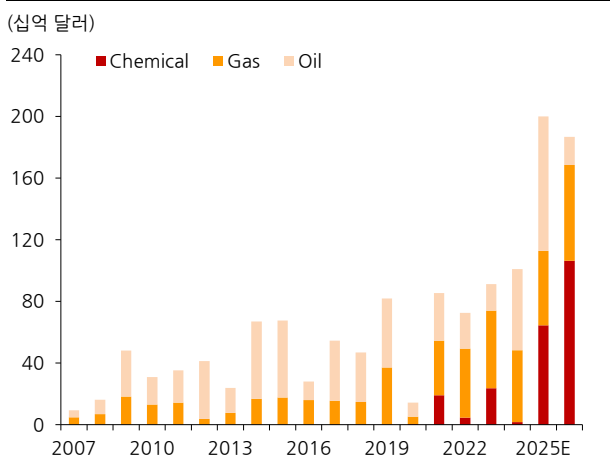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MENA 지역 발주금액 월별 추이: 12월 YoY +14%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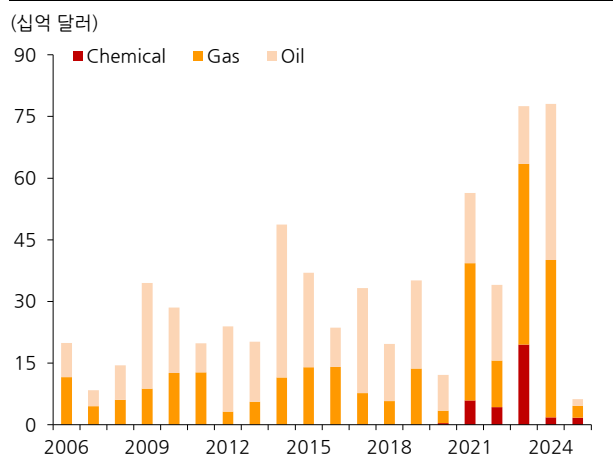
[그림33] MENA 주요 7개국 예산액 추이(석유가스)



주: '25년 2월 초 기준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MENA 주요 7개국 발주금액 추이(석유가스)



주: '25년 2월 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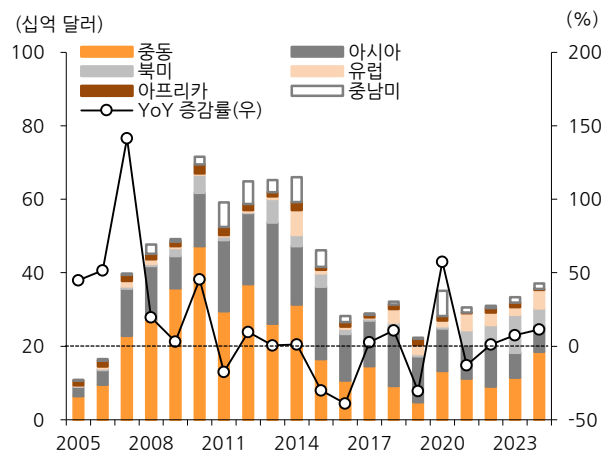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2024년 해외수주는 371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삼성E&A 124억 달러, 현대엔지니어링 60억 달러, 삼성물산 49억 달러, GS건설 30억 달러 순이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50%, 공중별로는 플랜트가 65%로 비중이 가장 크며, 국가별로는 사우디 119억 달러, 카타르 48억 달러, 미국 37억 달러, 헝가리 27억 달러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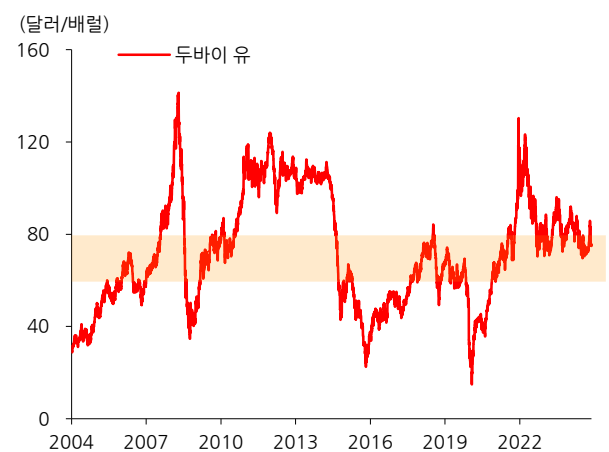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외수주 목표로 작년대비 35% 증가한 500억 달러를 제시했다. 73억 달러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고려해 목표치를 높여 잡았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작년 목표액은 400억 달러였다. 주요 5개 건설사(현대건설, 삼성E&A,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의 2025년 해외 수주목표 또한 전년 성과대비 11.7% 높게 제시됐다.

[그림35] 국내 건설사 해외수주: 2024년 YoY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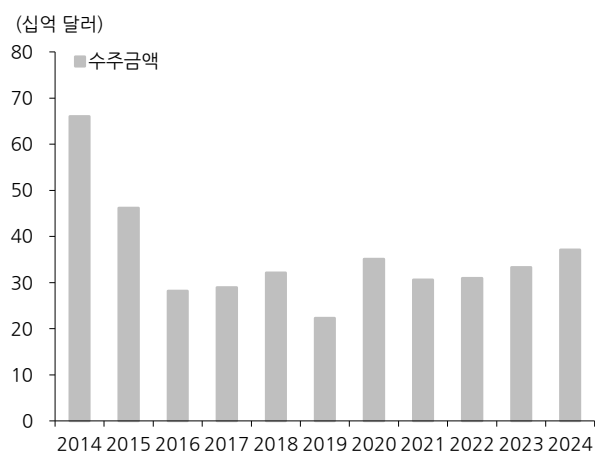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두바이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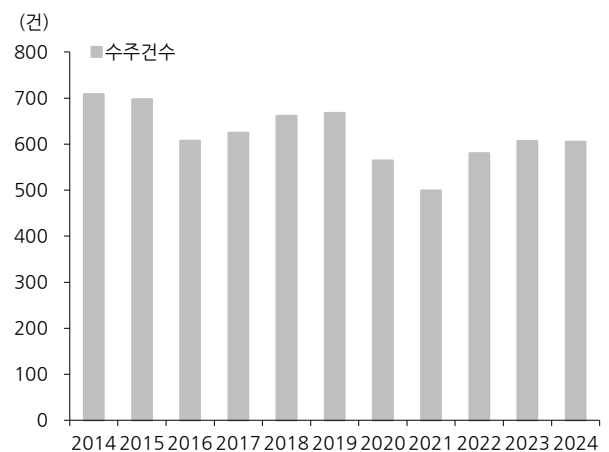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7]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성과(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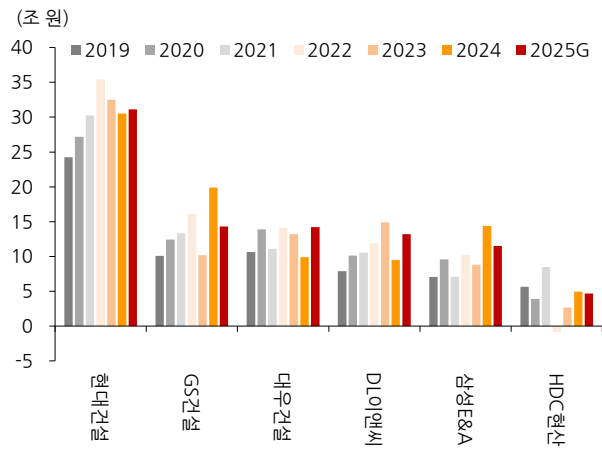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성과(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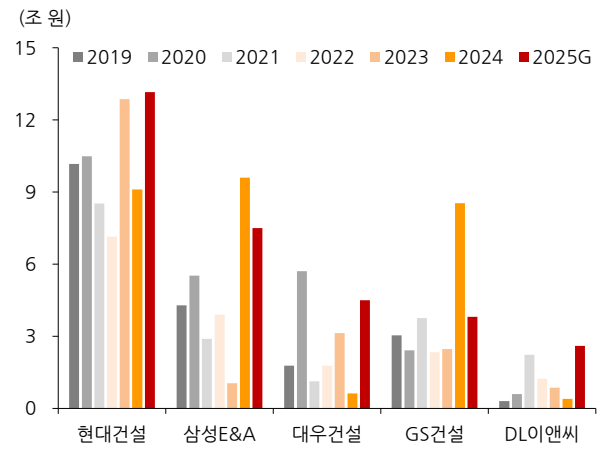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9] 주요 건설사 총 신규수주 추이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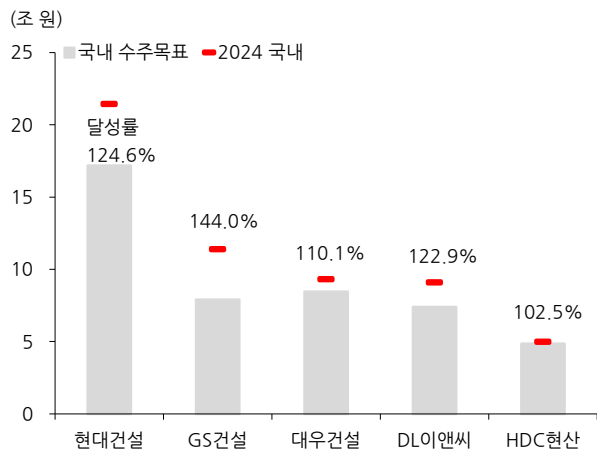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주요 건설사 해외수주 추이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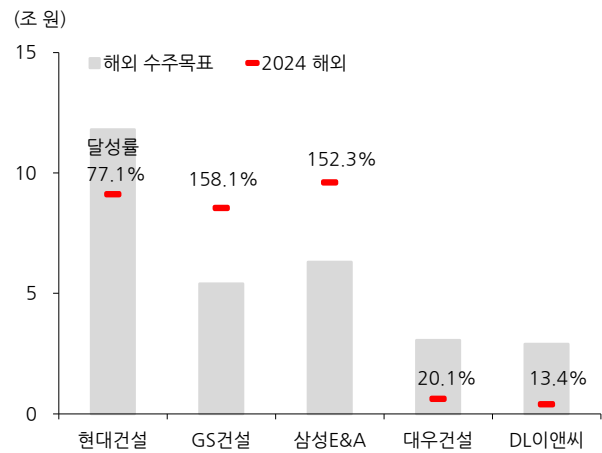
주: 삼성E&A 화공 부문 /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주요 건설사 국내 수주 목표 달성률: 합산 기준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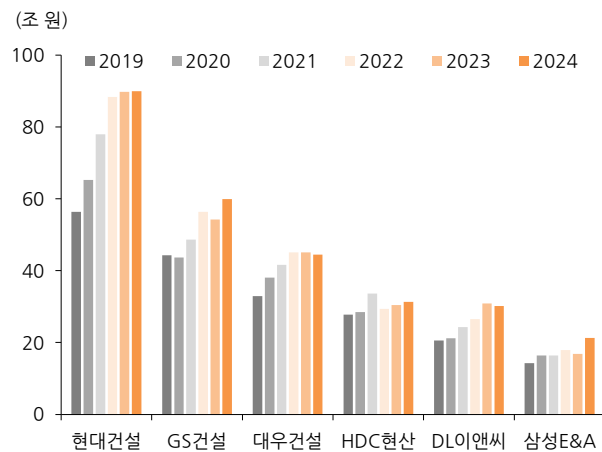
주: 연결 기준, DL이앤씨 수주 목표는 당사 가정, 삼성E&A는 화공/비화공 구분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2] 주요 건설사 해외 수주 목표 달성률: 합산 기준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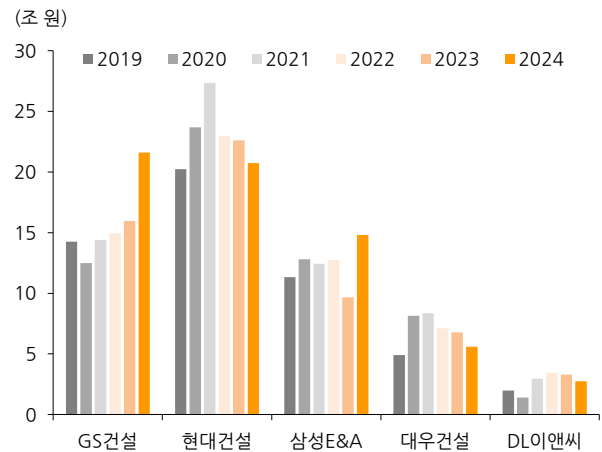
주: 연결 기준, DL이앤씨 수주 목표는 당사 가정, 삼성E&A는 화공/비화공 구분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3] 주요 건설사 전체 수주잔고 추이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4] 주요 건설사 해외 수주잔고 추이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2025년 해외수주 목표 및 수주 파이프라인

건설사	프로젝트명	규모	수주시기	비고
현대건설 [목표 13.1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13.1조 원		별도 7.5조 원, 현대엔지 5.6조 원
	이라크 해수처리시설	35억 달러	2Q25	단독 시공협상 중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1.1억 달러	2Q25	
	(엔지) 유럽 공사	2조 원	3Q25	단독 MOU 체결, 설계 진행 중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7,8호기	70억 달러	4Q25	사전설계 수행 중
	파푸아뉴기니 LNG	14억 달러	4Q25	w/ JGC, FEED완료, FD 대기 중
	(엔지) CIS 국가 2개 프로젝트	합산 4조 원	2025	단독 협상진행 중
	사우디 LTC Ph2	30억 달러	2026	FEED 결과 대기중(1Q25)
	사우디 블루암모니아	31억 달러	2026	FEED 경쟁 중
삼성E&A [목표 7.5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7.5조 원		화공 수주목표(당사 추정)
	UAE Taziz 석화	2.48조 원	'25.1	기 수주
	사우디 SAN-6 블루암모니아	30억 달러	1H25	
	카타르 NGL-5	30억 달러	2H25	
	이 외 총 7개 안건	156억 달러	2025	
대우건설 [목표 4.5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4.5조 원		해외 수주목표(당사 추정)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미정	2Q25	'24.10 LOA 수령
	리비아 인프라 재건	0.9조 원	2Q25	
	이라크 알포 해군기지	1.8조 원	2Q25	
	체코 원자력 발전	미정	3Q25	'24.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라크 공군기지	1조 원	2025	
	나이지리아 Indorama 신규	미정	2025	
GS건설 [목표 3.8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3.8조 원		신사업 포함 수주목표
	UAE North-East Bab P5	20억 달러	1H25	
	호주 인프라	미정	1H25	다수 프로젝트
	신사업 이니마	2.34조 원	2025	다수 프로젝트
DL이앤씨 [목표 2.6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2.6조 원		
	비중동 암모니아 비료	1.6조 원	2025	
	동남아 발전	0.5조 원	2025	
	동남아 토목 2건	0.5조 원	2025	필리핀, 인도네시아

주: 삼성E&A 화공 수주, 대우건설 해외 수주 목표는 당사 추정치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주가 및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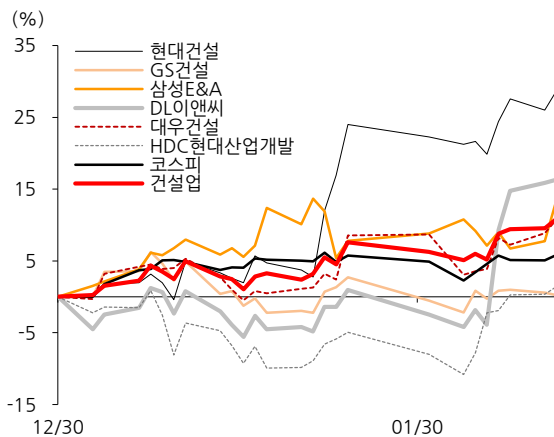
KOSPI 건설업
YTD 주가수익률 +10.8%

2025년 건설업 YTD 주가 수익률은 +10.8%로 KOSPI의 +5.8%를 5.0%p 아웃퍼폼 중이다. 건설업과 KOSPI의 주가 괴리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지면서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다. 종목별로는 긍정적인 영업이익 가이드스를 제시한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주가가 각각 YTD +28.7%, +16.3%로 가장 양호했다.

건설업 투자전략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Positive(긍정적)’로 유지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부정적/공정적 변수의 혼재로 주택시장 회복은 단기간 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려워 보이나, 건설사 실적은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익 개선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다. 다만,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실적은 업체별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중장기 실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투자포인트를 보유한 업체를 선호한다. 이에 업종 내 최선호주 현대건설, 차선호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의견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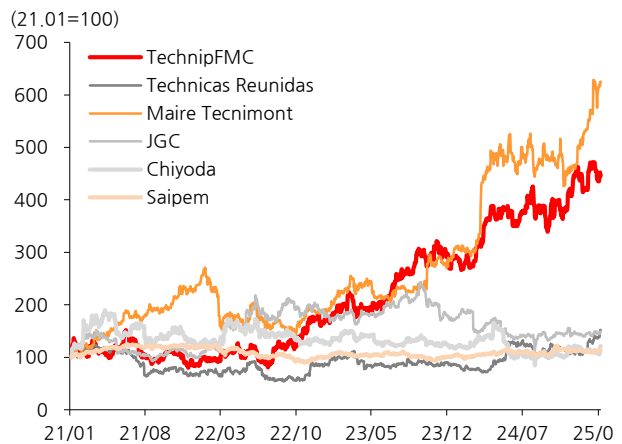
[그림45]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 추이



주: 2월 11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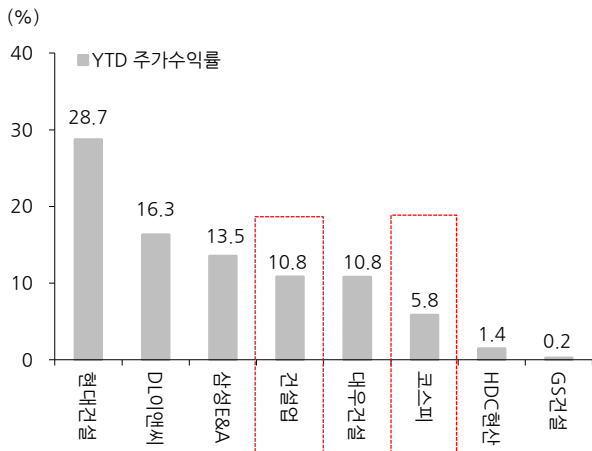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6] 해외 주요 건설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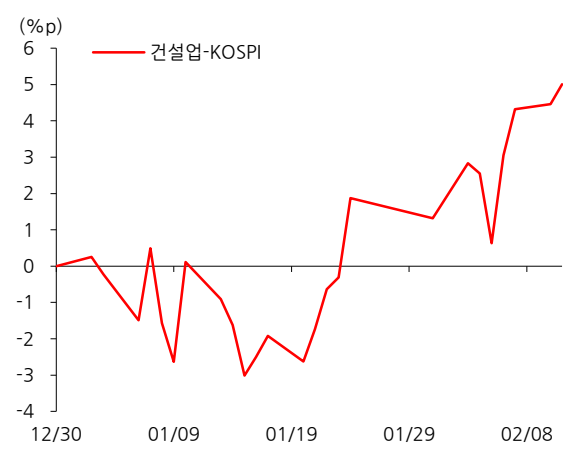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7] 주요 건설사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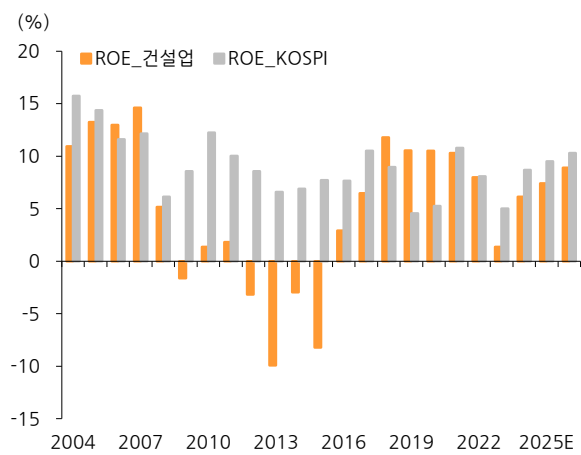
주: 2월 11일 종가 기준 /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8] 건설업과 코스피와의 주가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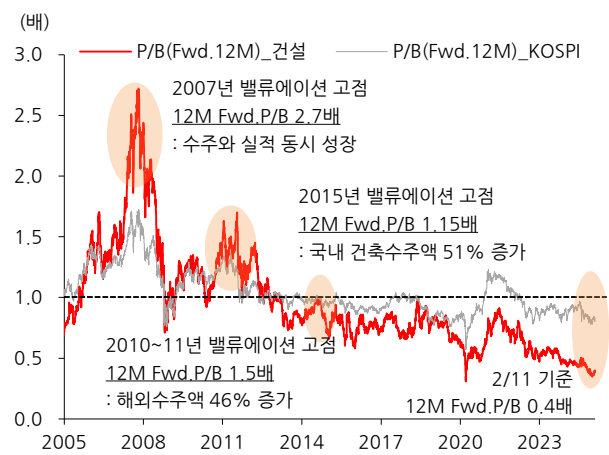
주: 2월 11일 종가 기준 /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KOSPI와 건설업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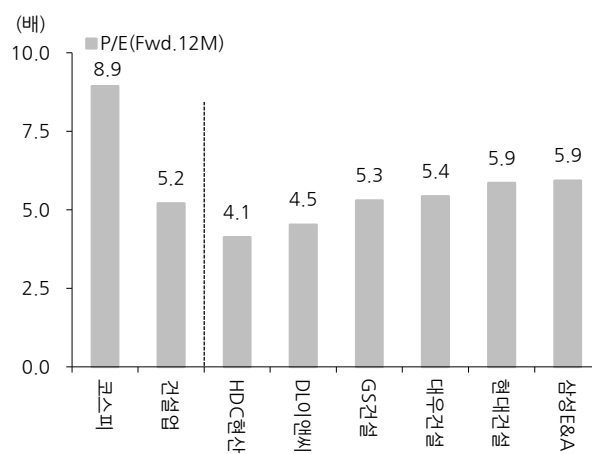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0] KOSPI 건설업 밸류에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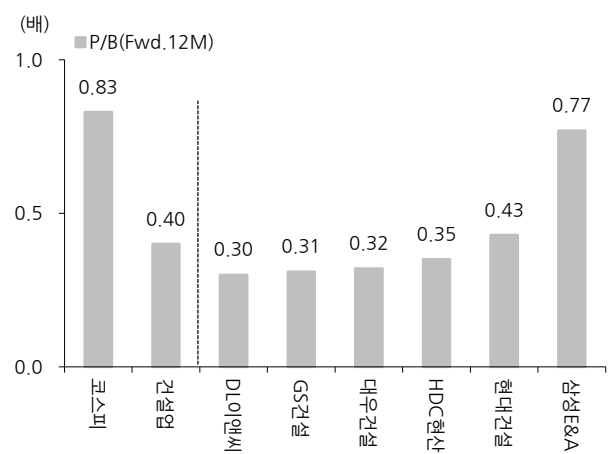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1] KOSPI와 주요 건설사 12M Fwd. P/E



주: 2월 11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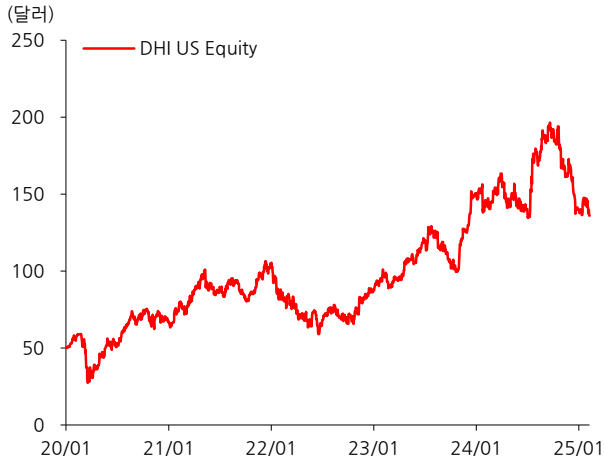
[그림52] KOSPI와 주요 건설사 12M Fwd. P/B



주: 2월 11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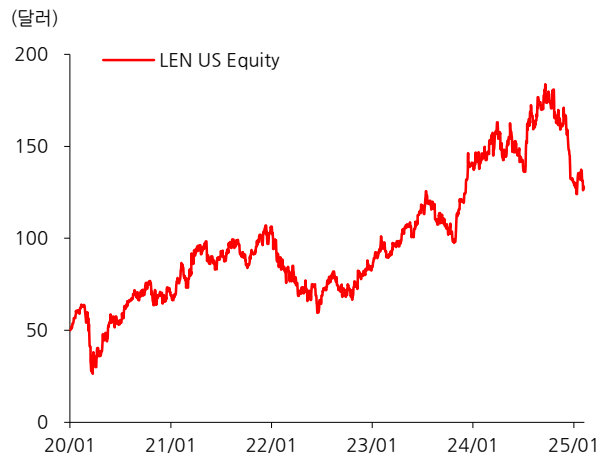
4. [첨부] 미국 주택지표

[그림53] 미국 DR Horton (NYSE: DHI)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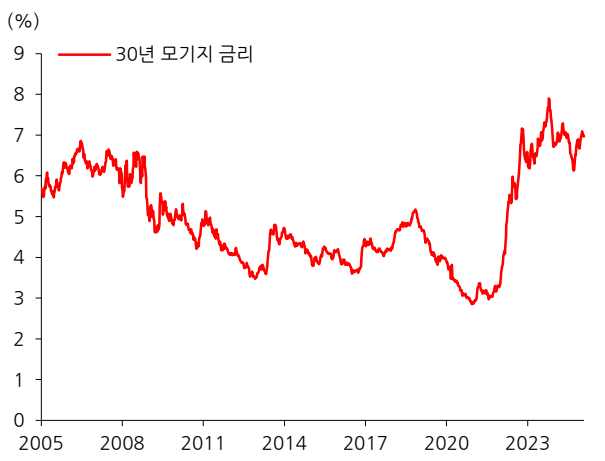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4] 미국 Lennar (NYSE: LEN)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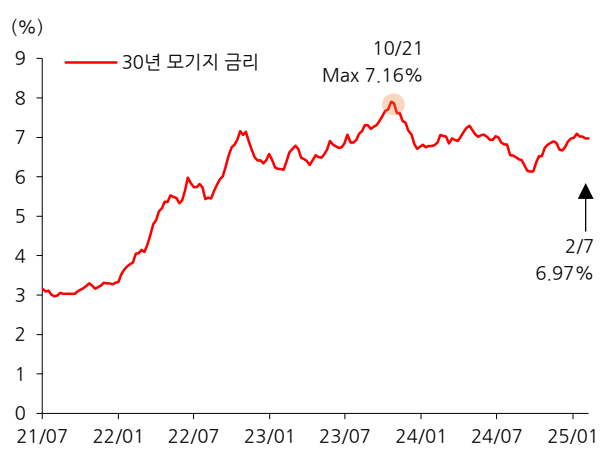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5]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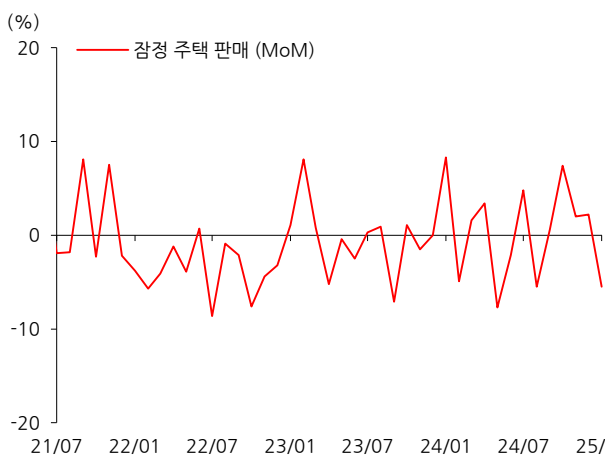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6]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최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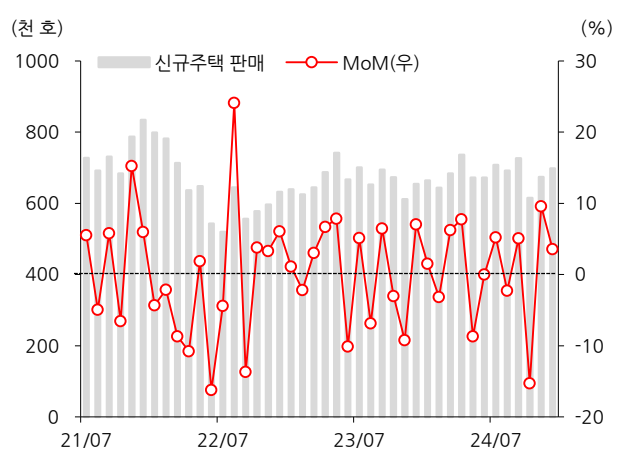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7] 미국 잠정주택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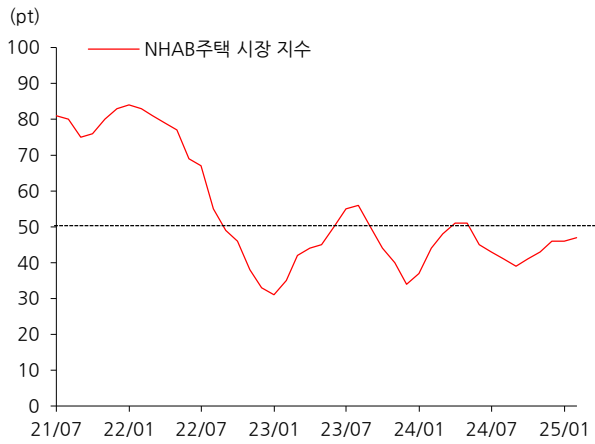
자료: NAR,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8] 미국 신규주택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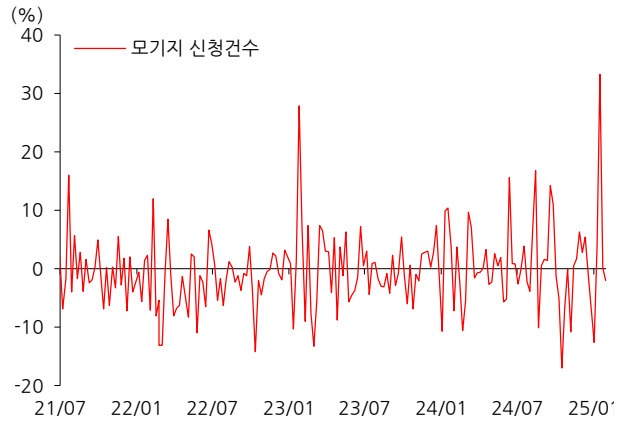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9] 미국 NHAB 주택 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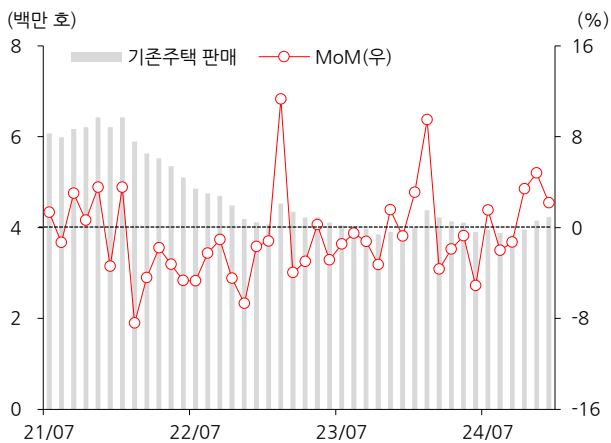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0]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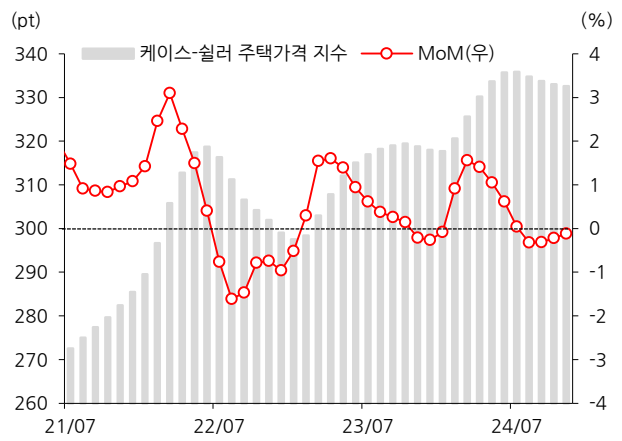
주: 전주대비 증감률 / 자료: MB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1] 미국 기존주택 판매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2] 미국 케이스-윌러 주택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2월 12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유림, 이다연)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지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2.0%	8.0%	0.0%	100.0%